

■ 의료관광 소식

○ 완도군, 전남도 유일 문광부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 선정 [2020. 05. 14.(목), 뉴스코리아]



▲ 완도타워 다도해일출공원 전경.

전남 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정비해 국민 누구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 23개소, 71개 관광지점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9개 지자체 23곳이 선정됐다.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예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완도군의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등 등 3개소다.

예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면 1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 1화장실, 편의 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1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1나눔여행 등 온·오프라인 홍보 1관광지 종사자 교육사업 등을 위해 관광 지점별로 국비 2억 5000만원씩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된 3개의 관광지점 중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국내 최초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친환경적 해변임이 입증된 곳이다.

완도타워는 완도의 랜드마크로 환상적인 레이저쇼와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진 곳으로 지난 2월 대한민국 조명대상을 수상했다.

정도리 구계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3호이며,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제작한 '문화유산 마음치유 콘텐츠' 영상 속 화제의 장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예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선정은 '2021완도방문의 해' 추진 및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완도군 전역에 열린 관광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출처 : 0419@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4638585&sid1=001>

○ 광주관광 컨트롤타워 '광주관광재단' 7월 출범 [2020. 05. 14.(목), 파이낸셜뉴스]



광주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이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관광재단은 광주지역의 분산된 관광자원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관리하고, 관광행정력 집중을 통한 관광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통합기구로 설립된다.

조직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인력을 승계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법인 출범과 함께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해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요 기능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기업회의 및 국제회의 개최 지원, 지역 관광정보의 수집 및 제공, 관광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관광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등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관광재단이 의향의 정의로움, 예향의 전통문화예술, 미향의 맛깔스러운 음식 등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해 광주만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고,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해나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과 홍보, 관광산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 광주관광의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관광재단 설립 전 집행기관 성격의 발기인 총회를 열어 광주관광재단의 초석이 되는 관광재단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안 심의 의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황태중 기자 출처 : hwangtae@fnnew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424341&sid1=001>

○ 동구, ‘광주문화광장(Arts Square)’ 조성 [2020. 05. 13.(수), 전남일보]



▲ 동구는 13일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주문화광장(Arts Square) 조성 사업을 앞두고 5·18민주광장 종각화단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5·18민주광장 일원에 ‘광주문화광장(Arts Square)’을 조성한다.

동구는 13일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주문화광장(Arts Square) 조성 사업을 앞두고 5·18민주광장 종각화단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택 동구청장과 오월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및 이병훈 국회의원당선인,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동구는 구청 상황실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고 5월 정신 선양을 위한 5월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0년 5월의 영령이 오늘의 이 땅에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과 ‘위업’을 상징하는 태산목을 식수하고 표지석을 설치했다.

‘광주문화광장(Arts Square)’은 5·18민주광장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계승 발전시켜 80년 5월이 갖는 의미를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하고자 조성된다.

또 5·18민주광장이 광주정신 발현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눔과 저항, 화합과 포용의 5·18정신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결합해 광주의 또다른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테마정원과 야간경관사업 및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먼저 올해는 가칭 ‘오월의 정원’ 조성, 야간경관개선 사업, 아트 벤치 등 각종 편의 시설 설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광주문화광장(Arts Square)’이 방문객들에게 80년 5월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민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출처 : lotus@jinilbo.com

<https://jinilbo.com/2020/05/13/2020051315064869969/>

○ 전남도, '관광객 6000만명' 시대 열어 [2020. 05. 13.(수),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전남도 관광객 '6000만명' 조기 실현에 크게 기여한 신안 천사대교 전경

전남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결과 지난해 관광객 6255만명이 방문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민선7기 도정목표인 6000만명을 조기 실현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무인계측기와 CCTV 자료, 유료관광지 입장권 판매실적 등을 통해 입장객 통계 자료를 매년 5월에 발표한다.

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에는 전년 대비 1182만명 증가한 625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7703만명인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도는 관광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지역관광 혁신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남관광 미래비전 선포와 블루투어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매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4월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와 9월 개장한 목포 해상케이블카, 체류형 관광지로 급부상중인 진도 솔비리조트 등이 한몫을 했으며, 앞으로 섬·해양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서남권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년 대비 40%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지역은 목포시와 광양시, 신안군, 해남군, 담양군,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등 8개 시·군이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은 순천시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지역축제 중단과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6000만명 관광객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관광객은 847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1276만명에 비해 429만명 (33.6%) 감소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지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호 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추이가 국내여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관광 마케팅 홍보가 절실하다"며 "청정 전남이미지 홍보와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6000만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붐 조성 이벤트 행사와 캠페인 전개, 지역특화 여행상품 개발 및 콘텐츠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황태종 기자 출처 : hwangtae@fnnew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423927&sid1=001>